

자료명	2026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엠바고	12월 29일(월)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12/28(일) 12:00부터)
문의처	경제정책팀 김현수 팀장(010-3751-8953, 02-6050-3442), 하서영 연구원(3447)

새해 첫 분기 기업 경기전망 회복은 아직... 수출전망 개선에도 소폭 반등 그쳐

- 1분기 제조업 BSI '77'... 수출기업(90) 16p 상승에도 내수(74)·중기(75) 체감경기는 정체
- 화장품, 반도체 호조... 高환율, 高비용에 전기, 식음료, 철강, 비금속광물은 업황 부진 전망
- 최근 지속된 高환율에 38% 기업이 '실적 악화'... '실적 개선' 응답(8%)보다 4.5배 많아
- 제조기업 68%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규제, 고비용 구조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 우선돼야

수출기업의 경기전망 반등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고비용 여파로 새해 초 기업 체감경기가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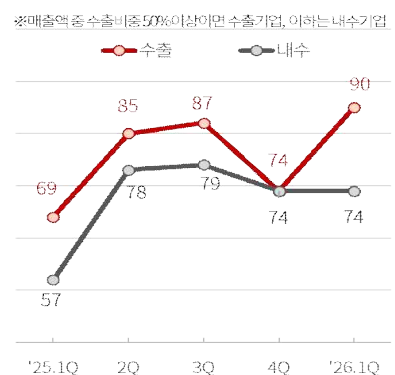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 전망치인 '74' 보다 3p 상승한 '77'로 집계되어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관세충격으로 급락했던 수출기업의 전망지수가 '90'으로 16p 상승했지만 내수기업의 전망지수는 '74'에 그치며 전체 체감경기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전망지수가 '75'로 대기업(88)과 중견기업(88)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출비중이 높아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체감경기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대한상의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전망치 추이



<그림2> 수출·내수기업 BSI



*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화장품, 반도체 호조... 高환율, 高비용에 전기, 식음료, 철강, 비금속광물은 업황 부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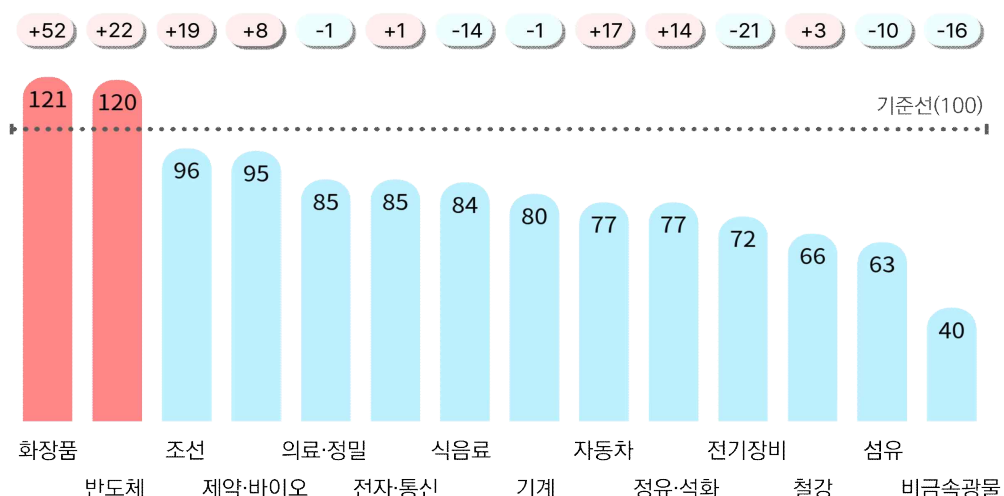
전체 14개 조사대상 업종 중 ‘반도체’와 ‘화장품’의 2개 업종만이 기준치 100을 상회하며 업황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맞물려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한 ‘120’을 기록했고, 화장품은 북미,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위상 강화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가장 큰 상승폭(+52p)을 보였다.

‘조선’은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3년 치의 수주잔량 확보와 고부가 선박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전 분기 대비 19p 상승해 기준치에 근접한 ‘96’을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국내 전기차 신공장 가동에 따른 공급능력 확대 등이 호재로 작용해 전망지수가 17p 상승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77’에 머물렀다.

고환율 지속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업종들은 새해 전망지수가 부진했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식음료’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증대로 전 분기보다 14p 하락한 ‘84’를 기록했고, ‘전기’업종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구리값 상승 여파로 전기장비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며 전분기보다 21p 하락한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도 건설경기 침체 속에 고환율 부담이 겹치며 가장 낮은 전망지수를 기록했다.

대미 관세율이 50%로 유지 중인 ‘철강’업종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더해, 고환율 부담까지 커지면서 5분기 연속 전망지수가 70선 이하에 머물렀다.

<그림3> 2026년 1분기 주요 업종별 BSI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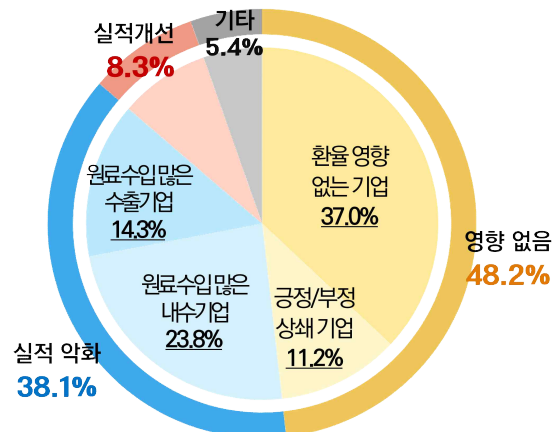
최근 지속된 高환율에 38% 기업이 ‘실적 악화’... ‘실적 개선’ 응답(8%)보다 4.5배 많아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3개월째 지속되는 중인 가운데 고환율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응답보다 ‘부정적’ 응답이 4배 이상 많았다.

최근 지속된 고환율로 인해 ‘기업실적이 악화됐다’고 있다는 답한 기업은 총 38.1%였다. 이 중에 ‘원부자재 수입이 많은 내수기업’이 23.8%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수출비중이 높음에도 수입원가 상승이 더 크다’는 기업도 14.3%였다. 이에 반해 ‘고환율 효과로 수출실적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8.3%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48.2%의 기업은 고환율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사업 구조상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11.2%의 기업은 ‘고환율의 영향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쇄해 실적 변동은 미미하다’는 응답이었다. <기타 5.4%>

<그림4> 최근 고환율이 기업실적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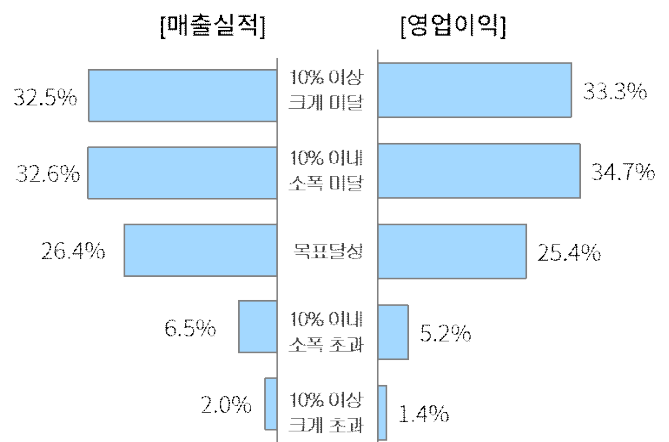
제조기업 68% ‘올해 영업이익의 목표 미달’... 규제, 고비용 구조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 우선돼야

올해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매출실적의 경우, 전체기업의 65.1%가 연초 목표 대비 미달했다고 답했는데, ‘10%이상 미달’이라는 응답이 32.5%, ‘10%이내 미달’이란 응답은 32.6%로 유사하게 나왔다.

‘연간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6.4%였고, 전체기업 중 8.5%의 기업만이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했다.


올해 비용측면의 상승요인들이 많았던 만큼 영업이익의 목표 달성률이 매출목표 달성률보다 더 낮았다. ‘영업이익 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그림5> 2025년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의 달성 여부



68.0%로 매출실적 미달 기업보다 2.9% 많았다.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업은 25.4% 였으며, ‘초과 달성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6.6%였다.

영업이익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결국 비용문제였다. 올해 영업이익 달성의 부담요인을 묻는 질문에 65.7% 기업이 ‘원부자재 가격 변동’을 꼽았고, 53.7% 기업은 ‘인건비 상승’ (53.7%)을 지목했다. 이어서 ‘환율 요인’ (27.5%), ‘관세·통상 비용’ (14.0%)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9.1%, ‘설비·연구 등 투자확대’ 7.4%, 복수응답>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통상 불확실성 완화와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으나, 고환율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에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성장지향형 제도 도입과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 개혁 등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고, 위기산업의 재편과 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12(금)
- 조사 대상 : 전국 제조업체 2,600개사 (응답업체 : 2,208개사)
- BSI지수 산출방식

$$\left[\frac{\text{'호전예상'기업수} - \text{'악화예상'기업수}}{\text{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